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의 碑學 유행과 그 의미

조성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조선후기사 전공
csungsan@hanmail.net

I. 머리말

II. 清末 碑學의 발흥과 의의

III. 17세기-18세기 후반 碑學의 전개

IV. 19세기 전반 碑學의 발전: 金正喜의 碑學 연구

V. 碑學 연구와 朝鮮學: 공유된 '중화'와 '과거'

VI. 맺음말

I. 머리말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동아시아 사상계에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 18세기 중반 이후 청 제국은 외몽골에서 신장, 티베트에 이르는 지역을 정복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넓은 영토를 갖추었고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것에 힘입어 四庫全書 편찬(1782) 등 학문에서도 大一統帝國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北學派가 이 시기 등장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청 제국의 면모는 조선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였고, 청 중심 질서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洪大容(1731-1783)을 기점으로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18세기 후반을 거쳐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대되는 면모를 보여 이 시기 北京으로 가는 조선의 지식인들은 으레 중국의 유명 지식인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교류는 조선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紀昀(1724-1805), 翁方綱(1733-1818), 阮元(1764-1849) 등의 일류급 지식인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청나라로부터 새로운 학문조류들이 조선에 빠르게 전래되었고, 역으로 조선의 문장도 중국 학계에 소개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는 並世·同文 의식을 가지면서 강한 문화적 연대감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들의 교류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碑學 연구이다. 碑學은 청나라 지식인들과 조선의 지식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학술적 매개로서 작용하였다. 청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考證學의 영향으로 金石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중국을 넘어 조선·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 산재되어 있는 古碑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조선의 지식인들도 이에 주목하면서 조선의 금석을 발견하였고,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지적 공감대를 심화시켜 갔다. 그러한 점에서 비학 연구와 그 유행은 이 시기 동아시아 학술계의 특징적인 경향이었다. 이 글은 이 시기 고비 연구가 가졌던 의미와 그 결과물들을 살펴봄으로써 碑學이 과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朝鮮學 연구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그 동안 碑學 관련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清代 碑學 발흥에서부터 조선의 碑學 연구의 일반적 경향, 金正喜(1786-1856)의 金石學 등에 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¹⁾ 하지만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비학이 과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조선학 연구에는 어떠한 측면에서 기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清末 碑學 발흥의 의의를 조망해 보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碑學의 형성과 추이를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비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청나라와 조선 지식인들의 지적 연대를 강화시켰으며 조선학 형성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 동안 書體의 문제나 金石·古董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碑學의 문제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II. 清末 碑學의 발흥과 의의

清代 學術界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특징적으로 일어난 학문 경향 가운데 하나는 金石學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청대 금석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들어 절정에 달하였다.²⁾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嘉慶(1796-1820)·道光(1821-1850) 연간에 활발하게 일어난 청대 금석고증학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오래 전부터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고 古碑의 탁본을 모은 서적들은 歐陽脩(1007-1072)의 『集古錄』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宋代에서부터 있어왔지만,³⁾ 그것이

- 1) 그 동안 이루어졌던 관련 국내연구들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완수, 「金秋史의 金石學」, 『濶松文華』3(1972); 류재학, 「阮元の 南北書派論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윤영은, 「清中期 碑學勃興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최완수, 「碑派書考」, 『濶松文華』27(1984); 박현규, 「上海圖書館藏 清 劉喜海의 定叢本 海東金石苑」, 『書誌學研究』21(2001); 임세권, 「조선시대 금석학 연구의 실태」, 『국학연구』1(2002); 이완우, 「碑帖으로 본 한국서예사-朗善君 李俱의 『大東金石書』」, 『국학연구』1(2002); 박현규, 「朴趾源 초록본 『金石錄』 분석」, 『大東漢文學』23(2005); 박현규, 「清朝 학자의 日本 多胡碑 입수과정과 분석」, 『日本語文學』33(2006); 박철상, 「조선 金石學史에서 柳得恭의 위상」, 『大東漢文學』27(2007).
- 2) 이 시기 금석학 연구의 개요에 대해서는 벤저민 엘먼, 양휘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예문서원, 2004), 376-378쪽 참고.
- 3) 宋代 金石學 연구에 대해서는 원종필, 「宋代 文人들의 金石器物에 대한 인식 考察」, 『中國人文科學』40(2008) 참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고증학적 금석학 연구들을 거치면서부터였다. 가감 없이 당대의 실정을 정확히 말하는 古碑는 고증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⁴⁾ 그러한 점에서 이 시기 금석학 발달의 중요한 배경으로서 考證學을 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증학이라는 학술적 요인에 더하여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은 書體의 변화 문제였다. 이 시기 北碑의 서체인 篆·隸書를 추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고비에 대한 관심은 지식인과 대중에게 폭넓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이는 지식인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까지 파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렇게 대중에게까지 고비에 대한 관심이 파급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전반 阮元의 「南北書派論」과 「北碑南帖論」(『研經室集』3集 卷1)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완원의 글은 고증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서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었다. 그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王羲之(307-365) 서체를 해부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천 년 이상 이어져온 南帖 중심의 書家 전통을 일거에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무척 파격적인 주장이었고 당연히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이 논의는 包世臣(1775-1855)의 『藝舟雙楫』, 康有爲(1858-1927)의 『廣藝舟雙楫』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고, 金正喜의 秋史體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고증학은 자명하다고 생각되었던 자신들의 중화문화 전통을 충충이 해부하면서 중화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중화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는 학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⁵⁾ 고증학의 이러한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 阮元이 서체를 역사화하여 그것을 재구성하였던 것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 완원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北碑와 南帖의 문제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기존의 모든 서체를 북비와 남첩으로 범주화하고 북비를 남첩보다 더욱

4) “金石之學은 經史와 표리를 이루며 經史의 거짓됨과 부족한 것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錢大昕의 언급은 이를 잘 말해준다. 錢大昕, 『潛研堂文集』卷25 「關中金石記序」, “金石之學 與經史相表裏”;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藝文印書館印行) 序, “金石文字足以正經史之僞 而補其闕.”

5) 청대 고증학은 순수한 중화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벤저민 엘먼, 양휘웅 역, 앞의 책, 89-103쪽; Kai-wing Chow, *The Rise of Confucian Ritualism in Late Imperial China*(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p.69-70, pp.184-186 참고.

우선하는 것이었다. 그것에는 그 동안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王羲之 서체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가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復古 논의를 제시하는 것이었다.⁶⁾ 이 시기의 금석학과 서체를 둘러싼 복고 논의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했다.

첫째, 완윈에 의해 촉발된 北碑 서체의 문제는 오랑개 왕조라는 이유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北魏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북위의 고비에 실린 서체가 중원의 순정한 서체이며 이를 구현하는 것이 중화문화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사유가 싹트면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北魏 시대의 篆·隸書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렸던 것이다. 완윈은 현재 보이는 王羲之의 서첩에는 예서체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당시 시대상에 비쳐볼 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왕희지 서첩 대부분이 위작일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하였다.⁷⁾ 이는 그 동안 서체의 표준으로 알고 있었던 왕희지 서체의 의미를 바꾸어놓은 주장인 동시에 남첩의 위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완윈은 「南北書派論」 말미에 자신의 주장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암시하였다.

南朝와 北朝의 經學은 본래 質實·輕浮의 구별이 있습니다만, 남조와 북조의 역사가 또한 매년 상대 측을 오랑개라고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書派가 나뉘는 바도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⁸⁾

남조와 북조의 경쟁 관계를 설파하면서 결국 서파의 문제도 이것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북조의 서체를 중화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깊이 내재된 것으로서 기존의 남조 중심의 문화 인식에 수정을 요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는 단순하게 북위문화의 재조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

6) 그들의 復古 논의가 기존과 다른 것은 어떠한 우상이 없다는 것이다. 가령, 조맹부는 왕희지를 우상으로 서예를 연습했고 이는 원대 사대부가 위진 사대부를 향하여 배운 것과 같다. 하지만 그들은 전서를 배울 때, 어떠한 우상도 없었다. 이는 기존의 복고 논의와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하겠다(陳振濂, 김홍철 편역, 『中國書法發展史』(청주대학교 출판부, 2000), 296-298쪽).

7) 阮元, 『擘經室集』 3集 卷1 「北碑南帖論」, “唐人修晉書南北史傳 于名家書法 或曰善隸書 或曰善隸草 或曰善正書 善楷書 善行草 而皆以善隸書爲尊 當年風尚 若曰不善隸是不成書家矣 故唐太宗心折王羲之 尤在蘭亭敘等帖 而御撰羲之傳 惟曰善隸書 爲古今之冠而已 絕無一語及于正書行草 蓋太宗亦不能不沿史家書法以爲品題 晉書具在 可以覆案而羲之隸書世間未見也.”

8) 阮元, 『擘經室集』 3集 卷1 「南北書派論」.

다. 王羲之, 趙孟頫(1254-1322), 董其昌(1555-1636) 등 몇몇 사람들의 서체를 배우는 것이 아닌, 금석학을 통하여 마련된 새로운 서체의 가능성은 唐碑의 楷書, 秦漢 刻石의 篆隸에서 先秦 시대의 金文과 南朝 시대의 刻石, 나아가 殷商 시대의 甲骨文과 戰國 시대의 簡牘 문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⁹⁾ 嘉慶, 道光 시기에 비해서 同治, 光緒 시기에 오면 碑派 書家들은 北碑와 秦漢石刻에 만족하지 않고 銅器銘文, 古代碑版을 학습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이다.¹⁰⁾ 기존에는 몇몇 유명한 碑版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과거의 유물들은 거의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 새로운 관심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¹¹⁾

이처럼 이 시기의 복고 논의는 특정한 과거 어느 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무한히 소급해 올라간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이것은 중국문화 이해의 폭이 上古로 계속해서 소급·확산되는 것이었고, 결국 이는 중국문화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그것의 통일적 이해에도 많은 부분 공헌할 것임은 자명하였다. 실제 많은 金石 관련 문화유적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굴되었고,¹²⁾ 北京 琉璃廠 書肆에는 학자들과 소장가들의 수요로 인해 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폭주하였다.¹³⁾ 이것이 바로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문화현상 가운데 하나인 ‘古董’의 유행이었다. 古董에 담겨진 ‘과거’가 새롭게 조사되고 인식되면서 한편으로 중국의 역사는 더욱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되어갈 수 있었다.

여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중국의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古碑와 古文獻을 통하여 조선과 일본의 ‘과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영토를 넘어선 중화문화 외연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당대 청나라 지식인들은 중화사상의 외연 확대와 편찬의 광범위성을 위하여 外國 작품들을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¹⁴⁾ 이는 넓게 보면 漢字 자체가 가지고

9) 배규하, 『中國書法藝術史(下)』(이화문화출판사, 2000), 361-362쪽.

10) 劉恒, 『中國書法史-清代-』(江蘇教育出版社, 2009), 221쪽.

11) 劉恒, 위의 책, 233쪽.

12) 이를 康有爲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康有爲, 『廣藝舟雙楫』(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六十八年(1979)) 卷1 「尊碑第二」, “碑學之興乘帖學之壞亦因金石之大成也 乾嘉之後 小學最盛 談者莫不藉金石以爲改經證史之資 專門搜輯 著述之人既多 出土之碑亦盛於是山岩屋壁 荒野窮郊 或拾從耕父之耒 或搜自官廚之石 洗濯而發其光采 摹搨以廣其流傳.”

13) 劉恒, 위의 책, 153-154쪽.

14) 박현규, 「조선 金正喜의 『東古文存』에 대한 再論」, 『東亞人文學』3(2003), 374쪽.

있었던 大一統의 성격에서 유래한 것이지만,¹⁵⁾ 직접적으로는 四庫全書의 편찬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사고전서 편찬의 담당자들은 조선과 일본의 문헌들을 사고전서 속에 포함시켰는데,¹⁶⁾ 이를 계기로 그들은 중국에서는 유실된 좋은 고문헌들이 조선과 일본에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역량도 재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나라 지식인들은 조선과 일본의 고비와 고문헌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南帖 중심의 문화권력을 배제하고 北碑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롭게 상상된 문화권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들은 북비의 강조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보편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글과 그것을 구현하는 서체가 단순한 소통과 매체의 문제가 아닌 통치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¹⁷⁾ 漢字 자체가 음성으로 구현되는 측면보다는 表意文字라는 시각적인 특성을 강하게 가졌기에¹⁸⁾ 글자와 이를 구현하는 서체는 정치적·사회적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자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이고 힘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체라는 시각적 권위를 가져야 했던 것이다.¹⁹⁾ 楷正한 서체로서 명령되고 구성된 漢字의 조합은 文字의 권위를 한층 배가시키며 지식인들과 民人에게 상당한 힘을 가졌다. 그러한 이유로 일정한 서체를 배우고 공유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서체가 그 시대에 유행한다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들을 가졌다.

예컨대 秦始皇이 제국의 효율적 통치를 위하여 전국의 상이한 서체를 小篆體로 통일하는 것, 唐나라 太宗이 王羲之 서체를 좋아했던 것이 南北朝의 문화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²⁰⁾ 송나라 건국 이후 淳化閣帖을 만들어 서체를 정리하는 모습, 원나라 때 송나라 황족의 후예로서 원나라에서 벼슬했던 趙孟頫의 서체가 득세하

15) 漢字 자체가 가지는 大一統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근, 『한자의 역설』(삼인, 2009), 17-19쪽 참고.

16) 이에 대해서는 藤塚鄰, 『日鮮清の文化交渉』(中文館書店, 1947), 25-32쪽 참고.

17) 중국에서 글이 갖는 정치적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최정섭 역,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미토, 2006) 참고.

18) 이보경, 『근대어의 탄생: 중국의 백화운동』(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8-16쪽.

19) 서체가 갖는 다양한 의미들, 권력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사이먼 룩슬리, 송성재 역,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생각의 나무, 2005).

20) 神田喜一郎, 「中國書道史(7) 隋·唐 一」, 『書道全集 第7卷 中國·隋唐 1』(平凡社, 1987), 7쪽.

는 것, 明나라 때 漢族 왕조였던 北宋의 黃庭堅(1045-1105), 蘇軾(1037-1101), 米芾(1051-1107)의 서체가 재조명되고 董其昌에 의해 조맹부의 서체가 폄하되는 것, 淸 乾隆帝가 조맹부 서체를 좋아해서 四庫全書가 조맹부 서체를 표준으로 통일되는 것은²¹⁾ 서체가 정치권력과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²²⁾ 그러할 때 기존 서체에 대한 반격에는 자연스럽게 그 서체가 함의하고 있었던 정치적·문화적 기반에 대한 비판 혹은 재조정의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천여 년 동안 따라오던 南帖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北碑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서체의 영역을 떠나 남첩이 귀족화였던 정치·문화 권력의 위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첩에서 북비로의 전환은 남첩의 귀족적이고 세련된 미학에서 北碑篆隸의 서민적이고 원시적인 미학으로의 전환이었다는 지적은 중요하다.²³⁾ 실제 첩학파의 많은 사람들이 귀족이며 고관대작이 많았던 반면, 碑學派 중에는 서민들도 상당수 있었다. 北碑書體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鄧石如(1743-1805)는 평생 布衣之士였고 그의 제자 包世臣 또한 끝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개혁적인 측면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남첩이 과거시험과 현실 관료문화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그 대조적인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포세신이 급진개혁론자로서 경세가요 병략가였고,²⁴⁾ 강유위가 기성 정치권력에 막혀 정치적으로 실의한 상태에서 『광예주쌍첩』을 짓고 동 시기에 『新學僞經考』와 『孔子改制考』를 저술했던 것도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²⁵⁾

21) 배규하, 앞의 책, 346쪽.

22) 王羲之, 褚遂良, 顏真卿 등 서예가들도 대부분 당대 유력한 정치가들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石川九楊, 『漢字がつくった東アジア』(筑摩書房, 2007), 67쪽 참고.

23) 陳振濂, 김홍철 편역, 앞의 책, 303쪽.

24) 최완수, 앞의 논문(1984), 46쪽.

25) 劉恒, 앞의 책, 254쪽.

III. 17세기-18세기 후반 碑學의 전개

조선 후기 古碑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을 연 저작은 왕손인 朗善君과 朗原君이 편집한 『大東金石書』(1668)였다. 낭선군은 宣祖의 손자인 仁興君 瑛(1604-1651)의 아들로 이름은 倝(1637-1693)였고 낭원군은 동생으로서 이름은 侃이었다.²⁶⁾ 이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이후 조선 후기 고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許穆(1595-1682)은 고비와 서체를 결합하여 일가를 이루었으며,²⁷⁾ 낭선군 李倝와도 교류가 있어 그의 도움으로 「衡山神禹碑」을 열람하기도 하였다.²⁸⁾ 비슷한 시기에 낭선군과 교류했던 趙涑(1595-1668)은 『金石清玩』을, 金壽增(1624-1701)은 『金石叢』을²⁹⁾ 만들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 고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난 것에는 다음 몇 가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서체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 松雪體와 韓石峰體의 대안을 上古에서 찾고자 古碑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丙子胡亂 이후 기존 서체를 일신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篆·隸書의 強勁하고 古拙한 느낌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碑文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일어났다.³¹⁾ 이러한 서체의 복고적인 흐름과 관련하여 당시 조선에 유행하였던 明代 秦漢古文風을 주목할 수 있다.³²⁾ 명대 진한고문파의 글들이 조선의 문단에 유행하면서 조선에서는 古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었다.³³⁾ 이와 함께 明末清初 고증학은 고대 金石文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면서 碑學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李倝가 활동했던 시기는 顧炎武(1613-1682)가 『金石文字記』를 짓는 등 금석학에 대한 관심이

26) 朗善君 李倝에 대해서는 이완우, 앞의 논문; 황정연, 「朗善君 李倝의 書畫 收藏과 編纂」, 『藏書閣』9(2003); 신영주, 「17세기 문예의 새로운 경향과 낭선군 이우」, 『한문교육연구』27(2006) 참고.

27) 許穆의 書藝에 대해서는 김동건, 「眉叟許穆의 書藝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2) 참고.

28) 許穆, 『記言』卷6 上篇 「衡山神禹碑跋」, “老人從東海歸 明年王孫朗善君 寄示衡山神禹碑.”

29) 宋時烈, 『宋子大全』卷149 「金石叢跋」.

30) 김동건, 앞의 논문, 33쪽.

31)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대해서는 최완수, 「韓國書藝史綱」, 『澗松文華』33(1987), 64-65쪽 참고.

32) 이에 대한 언급은 신영주, 앞의 논문, 551쪽에서도 보인다.

33) 조성산, 「17세기 말 - 18세기 초 洛論系 文風의 형성과 朱子學의 義理論」, 『韓國思想史學』21(2003), 362-370쪽.

점차 증가되던 때였다. 明末淸初 시기 중국에서도 金石學에 대한 관심과 함께 隸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행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풍조가 있었던 것은 조선의 경우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³⁴⁾ 이우는 연행사로서 청나라에 수차례 다녀오면서 이러한 상황을 목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전반기 고비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들을 대략 열거해 보면, 우선 李灝(1681-1763)은 「東方石刻」이라는 글에서 고비들을 정리하였다.³⁵⁾ 金光遂(1699-1777)는 주장가로서 많은 고비첩을 모았고 이는 李匡師(1705-1777)의 서예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³⁶⁾ 金在魯(1682-1759)는 『金石錄』을 만들었고, 兪拓基(1691-1767)도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³⁷⁾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조선의 고비 연구가 한 단계 진전되는 시기였다. 이처럼 고비에 대한 관심의 폭이 한층 확대될 수 있었던 것에는 청나라 학술계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8세기 후반 洪大容(1731-1783)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조선의 학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柳琴(1741-1783), 朴齊家(1750-1805) 등이 李調元(1734-1803), 紀昀, 潘庭筠, 鮑紫卿 등 중국의 당대 일류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청나라 학술계의 최근 학문동향들이 조선에 전래되었다. 청나라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당시 이루어지던 四庫全書와 같은 大一統의 서적정리 작업을 하면서 조선과 일본에 있는 서책들과 중화문화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과 청나라의 학술교류는 새로운 장을 맞이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물론 18세기 중·후반 청 제국이 확립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對淸 관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洪良浩(1724-1802)는 이 시기의 고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의 글들을 통하여 당대 고비학에 대한 관심과 학문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는 「半折碑」, 「平濟塔碑」, 「麟角寺碑」, 「新羅文武王陵碑」, 「新羅太宗王陵碑」, 「新羅眞興王北巡碑」, 「螯藏寺碑」,

34) 劉恒, 앞의 책, 303쪽.

35) 李灝, 『星湖僊說』 卷30 詩文門 「東方石刻」.

36) 최경춘, 『18세기 문인들의 서예론 탐구』, 한국학술정보(2009), 111쪽.

37) 洪良浩, 『耳溪集』 卷16 「題螯藏寺碑」, “及余西歸 拜相國兪文翼公 公曰 君在鷄林 得見 螯藏碑否 余對以求得始末 公蹶然喜曰 老夫平生聚金石錄數百卷 獨未得是碑.”

「金角干墓碑」, 「日月寺碑」에 대한 많은 글들을 썼으며, 그가 경주에서 지방관을 한 것을 계기로 특히 新羅 관계 비문의 글들을 많이 남겼다. 그가 이처럼 고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書法에 대한 관심과³⁸⁾ 紀昀 등을 통하여 중국의 학술동향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³⁹⁾ 그가 가졌던 조선 고비에 대한 관심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는 조선 고비에 남아 있는 중국의 서체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原州에 있는 「半折碑」였다. 그는 원주 영봉산에는 「반절비」가 있는데 이는 고려 태조가 지은 것으로서 글자는 詞臣 崔光胤이 唐나라 太宗 文皇帝(599-649, 재위 626-649)의 글자를 集字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당나라 문황제는 王右軍(王羲之)의 글씨를 좋아하였으며 지금 반절비의 글씨도 매우 훌륭해서 중국에서 구하고자 해도 구하기 어려운 天下의 寶跡이라고 하였다.⁴⁰⁾ 「麟角寺碑」의 제문에서는 고려가 당나라와 시기가 멀지 않아서 眞蹟을 얻어 새겼으니 근세 唐本 諸帖과 비교해 보아도 훌륭하다고 하면서 칭찬하였다.⁴¹⁾

또한 「무장비」에는 右軍의 風이 있다고 하였고 「각간비」에는 歐陽率更(歐陽詢, 557-641)의 법인 듯하다고 하며 모두 書家의 珍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방의 고적으로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중국으로 따지자면 峒嶽文이나 石鼓文에 버금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⁴²⁾ 「평제탑비」에 대해서도 그 글씨에 있어 동방고적의 으뜸이라고 칭할 만하다고 했다.⁴³⁾ 이것은 조선의 고비에서 현재 중국에서도 얻기 어려운 중국 서예의 진수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서체에 남아 있는 중화문화의 흔적을 추적하면서도 金生(711-791)이 가졌던 독자성도 동시에 인정하

38) 홍양호는 그 자신이 당대 유명한 서예가였고(이규상,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18세기 조선 인물지: 並世才彥錄』(창작과비평사, 1997), 130-131쪽), 이는 그의 비학이 서법 연구와 긴밀한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신영주, 「18, 19세기 홍양호가(家)의 예술향유와 서예비평」, 『민족문화사연구』18(2001), 418-419쪽).

39) 洪良浩 가문과 紀昀 가문을 世交를 이어가 『斗南神交集』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洪錫謨, 『陶厓集』 革 「斗南神交集跋」; 洪敬模, 『冠巖全書』 12冊 「斗南神交集序」 참고.

40) 洪良浩, 『耳溪集』 卷16 「題原州半折碑」.

41) 洪良浩, 『耳溪集』 卷16 「諸麟角寺碑」.

42) 洪良浩, 『耳溪集』 卷16 「題金角干墓碑」, “余觀鑿藏碑 有右軍之風 角干碑 似歐率更之法 皆爲書家珍品 而東方古蹟 莫先於此者 在中國則其峒嶽石鼓之亞乎.”

43) 洪良浩, 『耳溪集』 卷16 「題平濟塔」, “今按權懷素 考其世代 乃非善草書之上人也 筆法蒼勁 結構嚴整 一變六朝之體 始知間架之法 已在顏柳之前 而精神風韻 少遜於歐褚 然想是當世善書名者 可稱東方古蹟之首矣.”

는 모습을 보였다. 홍양호는 김생이 東方書家の 祖라고 하였으며 그는 鍾繇(151-230)와 王羲之를 배우지 않았지만 고인과 암습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였다.⁴⁴⁾

둘째로, 그는 고비를 토대로 조선의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고비에 대한 관심이 역사학과 깊은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평제탑비」를 통하여 홍양호는 新羅가 三韓을 비로소 하나로 합치했음을 언급하였다.⁴⁵⁾ 「신라태종왕릉비」의 제문에서도 태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여 삼한을 하나로 하였으니 만세의 공이 있다고 하였다.⁴⁶⁾ 특히 신라 「진흥왕복순비」는 당대 북방 영토 의식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홍양호는 野史에서 신라 진흥왕이 북쪽으로 巡狩하면서 비를 세웠다는 것을 보고 이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다가, 함흥관관으로 간 兪漢敦으로부터 「진흥왕복순비」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東方의 古蹟으로 이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지금 長津府를 개척하는 때 비로소 세상에 나오니 국가 문명의 운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음을 징험할 수 있겠다. 신라가 융성할 때에 幅員의 廣遠과 鞬鞞과의 경계를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 古史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 兪君의 옛것을 좋아하는 정성으로 이에 千歲 전의 고적을 드러내었으니 ‘博雅의 良士’라고 이를 수 있겠다.⁴⁷⁾

홍양호는 북방 영토를 개척하려는 때에 고대의 북방 경영의 흔적이었던 「진흥왕복순비」가 발굴되는 것은 국가 문명의 운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하였다. 홍양호를 비롯한 소론 측은 북방 영토와 역사공동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⁴⁸⁾ 그가 신라 고비의 발견과 북방 지역의 개발을 연계시켜 이해한 것은 고비 연구가 과거의 발견을 넘어 현재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홍양호는 조선 후기 비학 연구에 중요한 계기를

44) 洪良浩, 『耳溪集』 卷16 「題白月寺碑」, “夫金生 東方書家之祖也… 金生之書 蓋自闔門戶 未嘗學鍾王 而暗合古人如此.”

45) 洪良浩, 『耳溪集』 卷16 「題平濟塔」, “已兩國之地 皆爲新羅所並 三韓始合爲一.”

46) 洪良浩, 『耳溪集』 卷16 「題新羅太宗王陵碑」, “噫 太宗平麗濟 一三韓 實有萬世之功.”

47) 洪良浩, 『耳溪集』 卷16 「題新羅眞興王北巡碑」.

48) 박광웅,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韓國史論』6(1980), 86쪽; 이만열, 「朝鮮後期の 渤海史 認識」,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1981), 457-460쪽.

마련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인해 柳得恭(1748-1805) 또한 조선의 고비를 깊이 연구하였다. 유득공은 홍양호에게 古碑의 탁본을 빌려서 연구하였고 고비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다.⁴⁹⁾ 또한 朴趾源(1737-1805)의 三韓叢書에는 저자 미상의 『金石錄』이 있으며 이 저작에는 「東明王鏡」, 「母丘儉紀功碑」, 「新羅太宗陵碑額」, 「郎空大師碑陰」, 「金生書昌林寺碑」, 「劉仁願紀功殘碑」, 「平濟塔」이 실려 있다.⁵⁰⁾ 이밖에 李德懋(1741-1793)는 興法寺碑와 新羅·高麗의 石刻 등에 대하여 정리한 글들을 남겼다.⁵¹⁾ 이러한 北學派의 작업들은 朴齊家를 통하여 金正喜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IV. 19세기 전반 碑學의 발전: 金正喜의 碑學 연구

19세기 초반은 淸 제국 질서의 확립이 조선 지식인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청나라는 18세기 중·후반기 乾隆帝(1736-1799) 연간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점차 내부적으로 쇠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청 제국 전성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 경이 되어야 청 제국의 면모를 확인하고 인지하는 경향이 마련될 수 있었다.⁵²⁾ 청나라 중심의 새로운 중화질서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801년 辛酉獄事 이후 심화된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은 청나라와 조선의 안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념도 서서히 형성시켰다.⁵³⁾ 이러한 상황은 18세기 후반 조심스럽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던

49) 洪良浩가 소장한 고비의 탁본을 柳得恭이 보고 「羅麗古碑」라는 글을 남겼다. 柳得恭, 『古芸堂筆記』(아세아문화사, 1986), 216쪽. 유득공의 고비 연구에 대해서는 박철상, 앞의 논문, 57-68쪽 참고.

50) 이에 대해서는 박현규, 앞의 논문(2005) 참고.

51) 李德懋, 『靑莊館全書』卷55 叢葉記 2 「興法寺碑後」; 李德懋, 『靑莊館全書』卷69 寒竹堂涉筆 下 「羅麗石刻」; 『靑莊館全書』卷68 寒竹堂涉筆 上 「新羅名僧碑」.

52) 가령, 洪羲俊(1761-1841)은 1794년 燕京에 다녀온 뒤, 淸나라가 이룩한 질서를 통하여 비로소 지금 천하에 日月이 비치는 곳과 霜露가 내리는 곳은 모두 小康의 시대에 들어갔다고 평가하였다. 洪羲俊, 『傳舊』4 「淸國創業君臣論」. 小康이라는 표현은 洪敬模(1774-1851)도 사용하였다. 洪敬模, 『冠巖存藁』7册 「燕都世紀記」, “淸人柔順寬厚 非如夷狄之頑悍 而期業垂統 且近二百年 四裔賓服 民物小康.”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 「18세기 후반 - 19세기 전반 對淸認識의 변화와 새로운 中華 관념의 형성」, 『韓國史研究』145(2009a), 86-95쪽 참고.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점차 일반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나라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四庫全書 편찬시기와 그 이후 漢字로 구성된 조선과 일본의 중화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조선 및 해외에 대한 지적 욕구가 확산되는 추세였다.⁵⁴⁾ 천하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서책들을 집대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과 시대를 떠나 모든 서책의 존재가치를 재고하게 하였고,⁵⁵⁾ 이것은 조선과 일본의 학술계를 다시 바라보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漢字文化圈의 내부 결속을 한층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金正禧 등 조선의 지식인들은 翁方綱, 阮元과 같은 청나라의 일류급 지식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으며, 그 교류의 매개는 漢字로 구성된 碑版과 文獻이었다.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들은 碑版과 文獻을 상례적으로 교환하면서 학문적 교류를 심화시켜 나갔다. 19세기 들어 碑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들의 협동저작 형태까지 등장하는 것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에 덧붙여서 碑學 자체 내의 발전에서도 19세기 전반은 중요하였다. 19세기 전반은 비학 형성 발전에 있어서 획기를 맞은 시기였던 것이다. 이 시기는 우선 중국에서 阮元에 의해 「北碑南帖論」과 「南北書派論」이 나오으로써 碑學이 이론적으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고 鄧石如, 伊秉綏 (1754-1815)에 의해 비학에 입각한 서체가 완성되면서 碑學派가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었다.⁵⁶⁾ 金正禧에 의해 중국에서의 이러한 최신 경향이

53) 俞莘煥(1801-1859)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俞莘煥, 『鳳樓集』卷3 「送尹侍讀禪沃增如燕序」, “余故以土默特爲言也 以歐羅巴爲言也 其將奚暇於滿洲與姚江之言也 嗟乎 使中國而安也 東方亦安也 使中國而不安也 東方亦不安也 清人之治亂興廢 吾邦之所不可不知也。”

54) 이와 관련해서는 藤塚郁, 앞의 책, 25-32쪽; 박현규, 「中國에서 刊行된 朝鮮後四家著作物 總攬」, 『韓國漢文學研究』24(1999), 290쪽 참고.

55) 山東 지역의 장서가 周永年(1730-1791)은 『儒藏說』에서 모든 종류의 책이 다 모인다면 학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지식이 검토될 수 있다면 쓸모 없는 학문으로 보이는 것도 그 유용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周永年, 『儒藏說』, “果取古人之書 條分眉列 天文地理 水利農田 任人所求而咸在 苟有千古自命之志 孰肯舍其實者 取其虛者乎 故儒藏之成 可以變天下無用之學爲有用之學”)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고전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언급이었다. 켄트 가이, 양휘웅 역, 『사고전서』(생각의 나무, 2009), 114쪽 참고.

56) 康有爲, 앞의 책 卷1 「尊碑第二」 6쪽, “汀洲精于八分 以其八分爲眞書 師仿弔比干文 瘦勁獨絕 懷甯一老 實丁斯會 既以集篆隸之大成 其隸楷專法六朝之碑 古茂渾朴 實與汀洲分分隸之治 而啓碑法之門 開山作祖 … 玩文達亦作舊體者 然其爲南北書派論 深通此

조선에 전래되면서 조선 학계에서도 그 이전과는 구별되는 비학의 발전과 관심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19세기를 기점으로 동아시아의 碑學은 이전 시기와 확연히 결을 달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金正喜의 『禮堂金石過眼錄』, 李祖默(1792-1840)의 『羅麗瓊琳考』, 柳本藝(1777-1842)의 『樹軒訪碑錄』,⁵⁷⁾ 趙寅永(1782-1850)의 『海東金石存攷』, 吳慶錫(1831-1879)의 『三韓金石錄』 등이 나왔으며, 청나라 지식인 翁方綱의 『海東金石文字記』, 趙寅永의 도움으로 劉喜海(1793-1853)의 『海東金石苑』 등도 출현하였다. 본격적인 비학을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南公轍은 골동서화의 관심에서 많은 발미문을 남겼고,⁵⁸⁾ 李書九(1754-1825) 또한 중국의 고비에 발문을 썼다.⁵⁹⁾ 宋學을 중시했던 洪奭周(1774-1842)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金石古刻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물론 없지 않았지만,⁶⁰⁾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비학 연구에 매진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시기의 비학은 당대 학술계의 중요한 문화적·학문적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김정희는 阮元과 교우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南北書派論」과 「北碑南帖論」에 대해 인지하였고, 이 논의가 갖는 파급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¹⁾ 완원 이전에는 엄격히 말해서 碑學 연구가 서예이론으로서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남침과 북비를 조화하려고 하였고, 이 점은 翁方綱에게서 잘 보였다.⁶²⁾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阮元을 비롯하여 鄧石如, 伊秉綏가 등장하면서 서법상에서 碑學派가 갖추어졌다. 비학파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남침의 우위에 서고자 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었다. 김정희

事 知帖學之大壞碑學之當法 南北朝碑之可貴 此蓋通人達識 能審時宜辨輕重也.”

57) 이에 대해서는 박철상, 앞의 논문(2007), 73쪽 참고.

58) 南公轍, 『金陵集』 卷23, 卷24 「書畫跋尾」 참고. 여기에는 금석 13종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59) 李書九, 『楊齋集』 卷3 墨刻跋, 「後漢韓勅造孔廟禮器碑」, 「後周趙文淵西嶽華山碑」, 「題郭胤伯八分墨刻帖」.

60) 洪奭周, 『洪氏讀書錄』 藝文, 「集古錄」, “宋人以考證碑版法帖爲事 自公始 迄于近世 其書滋多 競以精博相高 要之皆無益之察也.”

61) 그는 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법에 남파와 북파가 있으며 索靖 이하 姚元標, 趙文深, 丁道護 등이 北派라고 하였다(金正喜, 『阮堂全集』 卷7 「書贈洪祐衍」, “書法有南派北派 自索靖以下姚元標趙文深丁道護等爲北派”). 이는 완원이 「남북서파론」에서 북파로 들었던 이들과 일치하였다. 阮元, 『擘經室集』 3集 卷1 「南北書派論」, “北派有鍾繇衛瓘索靖 及崔悅盧諶高遵沈襲姚元標趙文深丁道興等 以至歐陽詢褚遂良.”

62) 최완수, 앞의 논문(1984), 44쪽.

는 비학과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서체를 고증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김정희가 조선 서예가들을 비판한 점들이 이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그는 근래 조선의 서예가들이 이 문제에 무지하다고 지적하였고,⁶³⁾ 이것은 李匡師에 대한 비판에서 절정에 달했다.⁶⁴⁾

하지만 중국에서 있었던 비학과의 주장은 조선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조선에서는 漢宋折衷과 漢宋不分論이 우세하였기에 기존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의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⁵⁾ 김정희는 궁극적으로 북비와 남침을 통합·절충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⁶⁶⁾ 그가 “남과 북이 각각 한 스승을 따라 문호가 상대하는 것일 뿐⁶⁷⁾”이라고 南派와 北派를 논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도 “北碑를 많이 보아야만 비로소 그 처음부터 변천되어 내려온 연원을 알게 된다⁶⁸⁾”는 것이나, “北碑를 버리고서는 書法을 말할 수 없다⁶⁹⁾”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비는 김정희의 비학과 서체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전제로서 삼아야 한다. 김정희가 주목한 조선 고비 연구의 의미들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그는 신라비와 고려비 서체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이것이 갖는 중화문화와의 연계점에 주목하였다. 김정희가 언급한 신라비와 고려비에 대한 언설들을 요약해 보면, 신라비와 고려비는 대부분 歐陽詢의 서체를 따랐으며 「平百濟塔碑」만이 褚遂良(596-658)의 서체를 따랐다는 것이

63) 金正喜, 『阮堂全集』 卷8 「答朴惠百問書」, “近日我東所稱書家 所謂晉體蜀體 皆不知有此 卽取中國所已棄之籀籀外者 視之如神物 奉之如圭臬 欲以腐鼠嚇鳳 寧不可笑.”

64) 이에 대해서는 이완우, 「圓嶠 李匡師의 書藝」, 『美術史學研究』 190·191(1991), 90-91쪽; 金正喜, 『阮堂全集』 卷6 「書圓嶠筆訣後」 참고.

65)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金正喜, 『阮堂全集』 卷1 「實事求是說」, “故爲學之道 不必分漢宋之界 不必較鄭王程朱之短長 不必爭朱陸薛王之門戶 但平心靜氣 博學篤行 專主實事求是 一語 行之可矣”; 金正喜, 『阮堂全集』 卷9 「士說爲詩二十年 忽欲學元人詩 蓋其意元人多學唐故也 余遂書辨詩一篇 以明詩道之作」, “奈何愚賤子 唐宋分藩籬 … 唐宋皆吾師.”

66) 이에 대해서는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신구문화사, 2008), 227-268쪽 참고.

67) 金正喜, 『阮堂全集』 卷5 「代權彝齋敦仁與汪孟慈喜孫」, “書法之分爲南北兩派 亦不可誣也 此是南北之各尊一師互相門戶而已.”

68) 金正喜, 『阮堂全集』 卷3 「與權彝齋敦仁」, “漢魏以下金石文字 爲累千種 欲溯鍾索以上 必多見北碑 始知其祖系源流之所自.”

69) 金正喜, 『阮堂全集』 卷7 「書贈洪祐衍」, “今捨北碑 無以言書法.”

다.⁷⁰⁾ 완원은 구양순과 저수량을 北派로 분류하였다.⁷¹⁾ 완원에 의하면, 구양순은 왕희지 서법을 배우면서도 魏晉의 索靖 서법에 심취하여 北朝 서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⁷²⁾ 저수량은 고향이 비록 吳越이었지만 그 또한 구양순과 함께 북파의 일원이었다고 한다.⁷³⁾ 그러면서 그는 지금 사람들이 구양순·저수량의 서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⁴⁾ 이렇게 볼 때 신라비와 고려비 대부분이 구양순·저수량의 서체를 따르고 있다는 김정희의 주장은 이 비가 북비와 관련하여 중화 본래의 순수한 속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하기에 김정희는 “대개 歐陽詢의 黑水碑가 東으로 온 이후 우리나라의 碑版은 다 歐陽詢의 서체를 모방했으니 그 중화를 사모한 것은 진작 진흥왕 시대부터 이미 그러했던 모양이다”⁷⁵⁾라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진흥왕 비가 중국과의 관계성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碑는 중국으로 하면 陳나라 光大 연간에 세워진 것입니다. 六朝 시대의 금석들 가운데 지금까지 대략 남아 있는 것들은 이 비의 서체와 서로 흡사하니 그 당시 中外의 風氣가 멀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 그 때에 신라가 중국을 마음으로 본받고 손으로 따르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⁷⁶⁾

김정희는 고대 조선에 있었던 중국과의 동질감과 일체감을 이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는 순수한 중화문화의 유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조선에 내재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신라 글씨는 歐法을 따라서 중국과 병칭할 만하였는데, 고려 말과 조선 초의 松雪體와 이후

70) 金正喜, 『阮堂全集』 卷7 「書示金君奭準」, “至於吾東羅麗金石 一切皆歐法 而平百濟塔爲褚體也.”

71) 阮元, 『擘經室集』 3集 卷1 「南北書派論」, “北派… 以至歐陽詢褚遂良.”

72) 阮元, 『擘經室集』 3集 卷1 「南北書派論」, “歐陽詢書法 方正勁挺 實是北派 試觀今魏齊碑中 格法勁正者 卽其派所從出… 悅索靖碑者 體歸北派 微詞也 蓋鍾衛二家 爲南北所同托始 至于索靖則惟北派祖之 枝幹之分 實自此始”; 같은 책, 「北碑南帖論」, “若歐褚則全從隸法而來 磨崖巨石 照耀區夏 詢得蔡邕索靖之傳矣.”

73) 阮元, 『擘經室集』 3集 卷1 「南北書派論」, “褚臨蘭亭 改動王法 不可強同… 其實褚法本爲北派 與世南不同”

74) 阮元, 『擘經室集』 3集 卷1 「南北書派論」, “所望穎敏之士 振拔流俗 究心北派 守歐褚之舊規 尋魏齊之墮業 庶幾漢魏古法 不爲俗書所掩 不亦禱歟.”

75) 金正喜, 『阮堂全集』 卷6 「題北狩碑文後」, “蓋歐陽黑水碑東來以後 東國碑版 盡摹歐體 其夙慕中華 自眞興時已然耳.”

76) 金正喜, 『阮堂全集』 卷3 「與權彝齋敦仁」 三十二.

晉體로 인해 서체가 흔들려버렸다고 주장하였다.⁷⁷⁾

김정희가 보기에, 최소한 서체에 있어서만은 중화문화의 유제는 조선보다 신라와 고려 시대에 더욱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라와 고려문화의 비유리성을 강조하면서 고려 말과 조선에 와서 비로소 중화문화의 기틀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주자학적 역사인식과는 대별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⁷⁸⁾ 김정희의 주장은 오히려 고대사 속에서 중화의 흔적들을 발견하고자 한 일부 조선 후기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구조상 가까웠다.⁷⁹⁾ 이를 통해 조선의 古代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김정희의 경우는 비록 서체라는 매우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나, 신라와 고려 문화의 재평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고대를 재평가하는 것은 중화의 연원을 과거로 소급해서 조선문화의 중화적 유구성을 강조하고 선양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곧 이것은 중세적 중화주의의 내면화인 동시에 조선문화의 선양이라는 이중행위였던 셈이다. 여기에 중세의 조선학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은 중화문화의 연계성 때문에 신라와 고려의 고비 연구는 중국의 碑學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예컨대 翁方綱은 경주 靈藏寺碑를 통해 왕희지 서체인 「定武本蘭亭記」가 당나라 때의 刻임을 증명하였고,⁸⁰⁾ 김정희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방의 문헌 중에서 이 비석만큼 稱해진 것은 없다고 하였다.⁸¹⁾ 이러한 인식은 그들

77) 金正喜, 『阮堂全集』 卷4 「與金君奭準」 四, “東人羅代書 可與中國並稱 皆專習歐法 自入本朝 謂之晉體者出 面目大異 不知晉體者 竟是李後主所寫筆陳圖 認以隸几眞本 安得不大異也”; 金正喜, 『阮堂全集』 卷6 「題歐書化度寺碑帖後」, “麗末暨本朝來 專習松雪 轉失書家舊法 不知歐書之爲何樣 其後又高自標致 乃家家晉體 戶戶鍾玉童而習之者 皆樂毅論黃庭經遺教經 唐帖以下 輒卑而不顧 未知其所習樂毅黃庭遺教 竟是何本耶.”

78) 대표적으로 다음 吳熙常(1763-1833)의 언급을 들 수 있다. 吳熙常, 『老洲集』 卷23 雜識 一, “吾東方小中華之稱 非東人自好之言 亦多出於傳記 蓋箕聖東來 以其禮樂文物自隨 理勢之必然 而年代愈遠 文獻雖不足徵 觀乎箕城井田遺址 是其一驗 然則傳記之稱 可知其非徒然也 降自三韓 汔于勝國 貿貿汶汶 其免乎魑結之俗者幾希 本朝嗣興 服事皇明 無異內服 典章冠裳 盡述中國 一洗前代之陋 又丕開儒化 彬彬有鄒魯之風 於是始可無愧於小中華之稱.”

79) 소론계 지식인들은 고대사 속에서 조선이 가졌던 중화문화의 흔적들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 「조선 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歷史學報』 202(2009b), 66-80쪽 참고.

80) 劉喜海, 『海東金石苑(下)』(아세아문화사, 1976), 1011쪽, “碑行書雜用右軍蘭亭及懷仁大雅 所集字蓋自咸亨開元以來 唐人集右軍書 外國皆知服習 而所用蘭亭字 皆與定武本合 乃知定武本實是唐時所刻 因流播於當時耳(翁方綱跋).”

고증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신라비와 왕희지로 상징되는 중화문화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파악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둘째, 그는 역사학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김정희는 금석학이 갖는 역사학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금석학을 통해 현재 북한산의 진흥왕순수비가 無學碑가 아닌 眞興王의 순수비임을 밝히면서 금석학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음을 설파하였다.⁸²⁾ 김정희는 고비와 강역, 나아가 역사의 문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었다.

대개 이 碑는 단지 우리 동방 金石의 鼻祖가 될 뿐만이 아닙니다. 신라의 封疆을 國史로써 상고해 보면 겨우 比列忽까지에만 미쳤으니, 이 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신라 영역의 넓이 黃州嶺까지 미쳤던 것을 다시 알 수 있었겠습니까! 金石이 역사서보다 나은 점이 이와 같으니 古인들이 金石을 귀중하게 여긴 이유가 어찌 하나의 古物에 그쳤을 따름이었겠습니까!⁸³⁾

그는 금석이 국사보다 나은 점을 설명하면서 금석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비학 연구는 옛 유적들을 새롭게 발견해 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⁸⁴⁾

셋째, 김정희는 비학 이론을 통해 조선의 현 書法을 비판하였다. 그는 조선의 서법을 고증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다음은 그가 파악한 조선 시대 서예사의 대략이다.

우리 東國에 이르러서는 신라와 고려 이래로 오로지 歐碑를 익혔다. 本朝 이후에 안평대군이 비로소 松雪體로 따로 門徑을 열어 한 시대를 靡然히 따르게 하였지만 成任과 申檣 등의 여러 사람들은 역시 신라와 고려의 歐法을 고치지 않았다. 지금 崇禮門 편액은 곧 申檣의 글씨인데 깊이 歐陽詢의 골수에 들어갔고 또 成任이 쓴 弘化門의 편액과 大成殿 편액은 모두 北朝의 碑意가 있었다. 또 成達生 같은 이는

81) 吳世昌, 『權域書畫徵』卷1 金陸珍, “蘭亭之崇字三點 唯此石特全 翁覃溪先生 以此碑爲證 東方文獻之見稱於中國 無如此碑 余摩挲三復 重有感於星原之無以見下段也 丁丑 四月二十九日 金正喜 題識.”

82) 金正喜, 『阮堂全集』卷1 「眞興二碑攷」, “遂定爲眞興古碑 千二百年古蹟 一朝大明 辨破 無學碑弔詭之說 金石之學 有補於世 乃如是也 是豈吾輩一金石因緣而止也哉.”

83) 金正喜, 『阮堂全集』卷3 「與權彝齋敦仁」 三十二.

84) 金正喜, 『阮堂全集』卷6 「題北狩碑文後」, “此是新羅眞興王殘碑 碑在咸鏡道咸興黃草嶺 碑久亡秃 彝齋尙書 觀察是道 宣揚仁風 百度俱興 潛光幽懿 無不闡發 乃至蒐訪古蹟 得此碑於土中 此碑卽我東金石之祖 二千餘年舊蹟 復大明於世 不啻如黃龍嘉禾木連甘露之瑞而已 甚盛事也.”

서법이 特出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모두 송설의 문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 몇몇 분들은 모두 용이 날고 범이 뛰는 기세로서 韓石峯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한석봉은 오히려 송설체에 갇혀 있었으니 그 아래로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樂毅論, 東方像贊, 遺教經을 들어 晉體로 삼고 있는 것은 진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악의론은 海字本으로 徐氏의 소장이요 王順伯이 본 石蹟은 세상에 마침내 전해지지 못했다. 통행하는 俗本은 곧 王著가 쓴 것이었으니 李匡師가 평생을 통해 익힌 것은 왕저의 위본이며 유교경은 당나라 經生이 쓴 것이었다. 어찌 晉體가 이와 같겠는가. 붓을 놓고 한 번 웃는다.⁸⁵⁾

이를 요약해 보면 조선 전기에는 北碑風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것이 사라져 송설체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른바 晉體를 직접 배우고자 내세운 교본들도 진적이 아닌 후세에 만들어진 작품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광사를 혹독히 비판하고 唐을 경유하여 晉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른바 ‘由唐入晉論’을 주장하였다.⁸⁶⁾ 김정희의 이광사 비판의 핵심은 이광사가 歐陽詢과 褚遂良과 같은 北派를 무시하고 宋나라 때 王著(928-969)가 작성한 「樂毅論」을 학습하면서 왕희지에 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⁸⁷⁾ 이는 곧 이광사가 고증학적 학문방법으로 서체를 역사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서첩을 통하여 학습했던 까닭에 그의 서체도 사실 근거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김정희의 이러한 논리 전개는 완원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⁸⁸⁾ 이처럼 그는 조선조 서체의 문제점을 잘못된 禊帖을 臨摹했던 것에서 찾았고,⁸⁹⁾ 조선 사람들이 금석고증학에 무관심함을 비판하였다.⁹⁰⁾

85) 金正喜, 『阮堂全集』 卷7 「書贈洪祐衍」.

86) 金正喜, 『阮堂全集』 卷8 雜識, “遂至圓嶠 又書抹古來遺規 臆造一法 執筆不講懸臂 撥鏡結字 不知左取上齊右取下齊等法之自古不敢易者 一世陸沉 殆無迴悟者 是書家之一大變耳 學者知晉之未易學 而由唐人爲入晉徑路 庶無誤矣.”

87) 金正喜, 『阮堂全集』 卷8 雜識, “書則不然 必以鍾王爲準 非是輒皆忽之 如歐褚皆晉人神髓 而李圓嶠以方板眇之 謂之右軍不是書之科 不自覺其平生所習 乃王著書樂毅論也 董香光是書家一大結局 舉抹倒之 中國人以董臨蘭亭詩 入於蘭亭八柱帖內 有若嫡派眞脉之相傳 東人眼光 有甚過於中國賞鑑而然歟 多見其不知量也 若使圓嶠低首向暢整敬客書學習 以其天品 溯歐褚之不難 又不必深加苛責也 二王眞迹之至今尚存於中國者 有若右軍快雪時晴 袁生等帖 大令之送梨帖 皆其尋常閱過 尋常摹習 又如虞摹蘭亭 褚本蘭亭 馮之蘭亭 陸之蘭亭 開皇蘭亭 東人何嘗夢及 不知此個道理 一以迷誤不返 執三錢鷄毛動稱晉體 其所云晉體 竟果何本 不過是王著樂毅論耳 寧不可歎.”

88) 阮元, 『擘經室集』 3集 卷1 「王右軍蘭亭詩序帖二跋」.

89) 金正喜, 『阮堂全集』 卷1 「禊帖攷」.

90) 金正喜, 『阮堂全集』 卷2 「與申威堂觀浩」 三, “金石一學 自有一門戶 東人皆不知有此 如近篆隸諸家 但就其原本 謄過一通 而何嘗有考究於羽翼經史 與分隸同異偏旁流變者也.”

김정희는 근래 조선의 서예가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비판이 주로 소론, 소북계 서예가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정희는 “尹淳(1680-1741)의 글씨는 文徵明(1470-1559)에게서 나왔는데 세상이 다 알지 못하며 우선 윤순 자신도 또한 말하지 않았다”⁹¹⁾고 하였고, “姜世晁(1713-1791)의 글씨는 바로 褚遂良에서 나왔으나 역시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윤순과 같으니 옛사람들은 이와 같은 곳이 많았다”⁹²⁾고 하였다. 이러한 윤순, 강세황, 이광사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당쟁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黃胤錫(1729-1791)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참고가 된다. 황윤석은 나라에 黨論이 있는 이후 義理是非를 막론하고 일질 서로 통하려 하지 않아 비록 詩文字畫의 말단적인 것이라도 또한 서로 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였던 것이다.⁹³⁾

당시 서체를 주도하였던 것은 李敍(1662-1723), 尹淳, 姜世晁, 李匡師 등 주로 남인과 소론 계열의 인물들이었다. 李奎象(1727-1799)이 증언했듯이 “白下의 글씨가 세상에 유행된 이후로 사대부, 여향, 시골 사람들이 모두 휩쓸려 추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時體라 이름하였는데, 과거장의 글씨는 이 서체가 아니고는 내놓을 수 없었다”⁹⁴⁾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면 윤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⁹⁵⁾ 서체는 그것이 구축하는 내용과 함께 문풍의 기본적인 양태를 구성하므로 사실 노론 측에서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정희는 그들의 서체가 갖는 문제점을 그들이 모범으로 삼은 왕희지 서첩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찾았다. 그러할 때 그들의 서체는 계보를 추정하기 어려운 모사품에 불과하게 될 수 있었다. 완원의 이론들은 윤순, 이광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당대 서체 권력의 주류를 노론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이후 김정희의

91) 金正喜, 『阮堂全集』卷8 雜識, “白下書 出於文衡山 世皆不知 且白下亦不自言.”

92) 金正喜, 『阮堂全集』卷8, 雜識, “豹庵書 卽出於褚河南 亦不言所自如白下 古人多如是處.”

93) 黃胤錫, 『願齋亂藁』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卷9 丁亥(1767) 十二月 十一日(辛未) 53쪽, “我國自有黨論以來 無論大義理是非關係處 一切不欲相通 雖詩文字畫之末 亦不欲相觀 此豈非痼疾也耶.”

94) 이규상,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앞의 책, 125쪽.

95) 노론 중에는 鍾繇를 모범으로 삼은 金相肅(1717-1792)의 稷下體가 있었다고 하나 그 영향력은 이들에 비해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成大中, 『淸城集』卷8 「書坯窩重言帖後」, “先生書學鍾太傅 世稱稷下體 因其所居而名也 然方其在時 不甚貴也 今則一辭推重 待以師範 昔之矜才鬪巧 自以爲名世者 今皆懣然服矣 亦可見正道之終勝也.”

추사체는 조선의 서체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日本 奈良 시대의 多胡碑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⁹⁶⁾ 다호비는 19세기 전반 조선, 청나라, 일본의 비학 연구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호비는 和銅 4년(711)에 조성된 것으로서 那須國造碑, 多賀城碑와 함께 일본 3대 古碑 중 하나이다. 이 비석은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천여 년이 지난 18세기 중반 寶曆 연간에 平鱗景瑞와 高橋道齋(1718-1794)에 의해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이것은 당시 古碑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많은 주목을 받았다. 1763년(영조 39) 통신사 일행으로 파견된 成大中(1732-1809)은 日本에서 平鱗景瑞로부터 이 비문을 얻었다고 한다.⁹⁷⁾

다호비문은 이후 金正喜, 趙秉龜(1801-1845)를 통하여 葉志詵(1779-1862), 翁方綱, 劉喜海에게 전해졌고 이후 葉志詵의 『日本殘碑雙鉤本』, 趙之謙의 『補寰宇訪碑錄』, 楊守敬(1839-1915)의 『激素飛清閣評碑記』와 『寰宇貞石圖』 가운데 수록되었다.⁹⁸⁾ 이렇게 당대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이 비문이 北魏의 雄渾한 六朝楷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북비적인 서체 양식이 비학에 관심이 많았던 지식인들의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宋德文이 成大中이 소장한 多胡碑를 보고, 이는 漢隸의 古法이며 중국에서도 전수됨을 잃은 지 오래인데 오랑캐에게서 얻었다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다는 일화는 다호비의 당대적 의미를 잘 말해준다.⁹⁹⁾ 다호비는 중국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중화의 흔적들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이다.

96) 다호비와 관련한 이 문단의 서술은 박현규, 앞의 논문(2006) 참고.

97) 成大中, 『清城集』 卷8 「書多胡碑」, “多胡碑 余得之日本 其稱和銅 迺其元明天皇年號 其四年則唐睿宗景雲二年辛亥 而距今一千一百九十年也 碑之淪於野土 不知其幾年 而平鱗者始得之 鱗雅善金石圖章 獲此以爲珍 好事者亦盛爲稱之 余之入日本 鱗以此見遣 欲廣其傳.”

98) 박현규, 앞의 논문(2006), 68-70쪽 참고.

99) 成大中, 『清城集』 卷8 「書多胡碑」, “適芝溪宋德文見而奇之曰 此漢隸古法也 中國之失其傳久矣 今乃得之夷耶 咨嘆撫玩 久不能已.”

V. 碑學 연구와 朝鮮學: 공유된 ‘중화’와 ‘과거’

앞서 살펴보았듯이 碑學 연구는 17·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와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는 金石 취향에서부터 考證學, 書體의 문제 등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19세기 전반 阮元의 「南北書派論」과 「北碑南帖論」은 비학 연구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왔다. 北碑야말로 진정한 중화문화의 구현에 가깝다는 주장은 기존에 비해 비학 연구의 외연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이 시기 이후 古碑와 古董에 대한 관심이 기존보다 더욱 증대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발견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역사의 외연이 더욱 구체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중국 역사를 소급해 올라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중국 고대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선과 일본의 고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아갔다. 여기에는 학문의 大一統을 기획했던 四庫全書 편찬과정에서 촉발된 모든 서책들을 모은다는 문제의식도 깊이 관여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 경향이 중국 중심의 배타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명청교체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중화’ 개념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싹트면서 중화를 ‘보편문화’로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형성되었다.¹⁰⁰⁾ 그러할 때 중화는 중국 지식인들이 일방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아니었다. 그러한 가운데 중화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同文·並世 의식도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출현할 수 있었다.¹⁰¹⁾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같은 시대와 글자를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同文·並世 의식을 강화하면서 활발하게 글들을 서로 교환하였다.

중국에서 조선과 중국 문인의 시들을 함께 엮은 시집이 출현되거나 조선 문인들의 시문집들이 출간되는 것,¹⁰²⁾ 尹光心(1751-1817)의 『並世集』

100) 조성산, 앞의 논문(2009a), 75-86쪽; 조성산, 「18세기 후반 - 19세기 전반 ‘朝鮮學’ 형성의 전제와 가능성」, 『東方學志』 148(2009c), 185-210쪽 참고.

101) 並世 의식에 대해서는 김영진, 「조선 후기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2003), 75-85쪽;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휴머니스트, 2007), 32-33쪽 참고.

102) 가령, 청나라 지식인 符葆森이 당대의 시들을 모아 편찬한 『國朝正雅集』에 조선인들의 시들이 실렸으며(박현규, 「청 符葆森의 『國朝正雅集』에 수록된 朝鮮詩」, 『中國學報』 51(2005)), 『貞齋稿略』(朴齊家), 『恩誦堂集』(李尙迪), 『相看編』(申在植 등), 『石見樓詩抄』(李復鉉) 등 조선인들의 문집들이 중국에서 간행되었다(김영진, 「조선 후기 중국

에 중국과 일본 문인의 글이 조선 문인의 글과 함께 실리는 것, 柳得恭이 朝鮮, 中國, 日本, 安南, 琉球의 지식인들의 글을 한데 엮어 『並世集』을 편찬하고자 한 것,¹⁰³⁾ 趙寅永의 도움으로 劉喜海가 『海東金石苑』을 내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나라의 何秋濤는 吳慶錫(1831-1879)의 『三韓金石錄』에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자를 매개로 한 공동 작업은 그들이 하나의 문화권 속에 있다는 同文·並世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문·병세 의식은 자신들을 하나의 문명권으로 사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중국 지식인과의 활발한 교류가 역사상 처음 있는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은¹⁰⁴⁾ 이 시기에 그들의 교류가 갖는 성격을 한층 분명하게 해준다.

그들은 서로 碑版을 교환하면서 과거 조선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 공유점들을 파악하였다. 비학을 통하여 중국의 과거와 조선의 과거가 확장되고 발견되면서 그것이 갖는 유사성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김정희는 조선의 고비가 歐陽詢 서체로서 중국의 북비와 유사한 서체로 구성되었음을 주목하면서 조선 고비가 갖는 중화적인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은 조선의 과거와 중국의 과거가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전개되어 갔음을 말해주는 것인 동시에 고비를 통하여 고대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漢字文化圈의 교류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翁方綱이 「鑿藏寺碑」를 통하여 「정무본난정서」가 당나라 때의 所刻임을 증명해 내는 것 또한 조선과 중국이 하나의 문화권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들은 일본의 多胡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기존에는 관심 밖에 있었던 조선과 일본의 고비가 그들의 중요한 관심 영역 안에 들어오고 인식되는 것은 당대 학술계의 특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비학이 가졌던 당대적 의미를 잘 말해준다. 「무장사비」의 탁본을 얻기 위해 金正喜가 경주 무장사 터를 직접 찾아가서 碑를 발굴해 내는 일화는¹⁰⁵⁾ 碑學이 중화로서의 ‘과거’를 발견하는 데 어떠한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625-641쪽).

103) 柳得恭, 『冷齋集』 卷7 「並世集序」, “言詩而不求諸中國 惡乎可哉 輒錄其唱酬篇章及因風寄聲流傳海外者 手自點定爲二卷 附以日本安南琉球三國詩若干首 與吾黨二三子共之.”

104) 이가원, 「朝·淸의 文學의 交驛」, 『韓國漢文學研究』5(1980), 222-223쪽.

105) 劉喜海, 『海東金石苑』 下(아세아문화사, 1976), 1009쪽, “此碑只前一段 余來此窮搜 又得斷石於荒莽中 不勝驚喜叫絕也 … 金正喜題識.”

기여를 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의 배후에는 조선의 문화유적이 ‘중화’라는 보편문화의 원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

중화문화의 원형을 찾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고비 연구에 전념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의 역사와 유물을 지극한 보배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김정희의 제자 李祖默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新羅와 高麗의 石墨은 가장 清雋하고 絶俗하여 宛然히 六朝의 풍미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여 발휘되지 못해서 마침내 明月夜光으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 매몰되게 하였으니 심히 한탄스럽다. 이에 천 개의 碑를 두루 방문하여 七笏을 상세히 분간하고 尺寸을 신중히 측량하여 눈썹과 눈을 세밀하게 구분해 내니 모두 지극한 보배가 되었다.¹⁰⁶⁾

신라와 고려의 石墨은 가장 清雋 絶俗하여 중국 六朝 시대의 풍미가 있지만 수천 년 동안 땅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이는 모두 지극한 보배[至寶]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至寶인 고비를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 조선의 역사서에서 고대사가 새롭게 발견되고 해석되면서 조선의 과거가 확장되는 것과도 닮아 있다. 당시 이루어진 고대사 연구와 궤를 같이하여 고대의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흥미로운 역사 현상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신라와 고려의 석목이 지극한 보배가 되는 방식은 근대 민족주의적 맥락이 아니라 중세 중화주의에 근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¹⁰⁷⁾ 중세 중화주의적 맥락에서 중화문화는 유일한 보편 문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근대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볼 때 중화문화는 국적을 갖는 ‘중국의 것’이지만 중세인들이 보기에 이는 중국적인 것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만 하는 유일한 보편문화였다. 그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서 조선의 금석문이 중국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중세 시대에 중국적인 것인 동시에 조선적인 것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여기에 당대 조선학 형성의 중요한 배경과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06) 李祖默, 『六橋彙畧』 卷2 「羅麗琅琳考序」.

107) 중세 중화주의와 근대 민족주의 사이의 朝鮮學 관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성산, 앞의 논문(2009c), 210-227쪽 참고.

요컨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지식인이라는 ‘외부’와 만나면서 자신의 ‘내부’를 새롭게 구성하였지만, 중국의 지식인들은 근대 민족주의 성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배타적인 외부는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목적의 중화문화, 즉 보편문화를 구성하는 외부였다는 점에서 근대의 경우와 차이를 갖는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역사서와 碑版, 古文獻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그에 대한 대응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내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朝鮮學을 발전시킨 이들의 상당수는 중국 지식인들과 깊이 교류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예를 들어 柳得恭, 洪良浩, 金正喜, 李德懋, 朴趾源 등 北學派가 조선학 연구자 중 다수를 차지했다. 당대 조선학의 발전을 하나의 경로로만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지만, 중국이라는 외부가 자신의 내부를 성찰하는 데 많은 자극을 주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부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학이 만들어낸 篆·隸書의 서체 유행은 오래된 과거의 것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재에도 미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점에서 19세기 碑學의 유행은 전·예서를 오래된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친근하게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北魏, 漢나라의 역사, 나아가 上古 시대의 문화를 현재의 그것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함으로써 하나의 미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거’와 ‘역사’를 재발견하고 그들의 서체를 현재에 공유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미학적 거리를 좁히는 연대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정체성을 위하여 병세 의식이 동시대적 입장에서 거리를 좁히는 기능을 하였다면 이는 과거와 현재의 미학적 거리를 좁힌 것이다. 이를 전제로 비학을 공유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碑版을 통한 활발한 교류는 그들 고유의 지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北碑라는 서체 미학을 공유하는 19세기에 발생한 새로운 지적 네트워크였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생소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¹⁰⁸⁾

108) 가령, 多胡碑의 서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成海應은 다호비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성해응은 주자학적 의리론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VI. 맺음말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동아시아에는 碑學 연구가 활발하였다. 청나라 考證學의 영향으로 발전한 비학은 고증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능하였지만 이후 그 이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이는 19세기 전반 阮元的 「南北書派論」과 「北碑南帖論」이라는 글이 나오고 이어 包世臣의 『藝舟雙楫』, 康有爲의 『廣藝舟雙楫』이 나오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北碑風의 篆·隸書가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지면서 중국 전국 각지에는 金石에 대한 관심과 함께 古碑를 찾고 이에 관심을 갖는 풍조가 크게 만연하였다. 고증학에서 비롯된 고비에 대한 관심이 서체의 문제로 옮겨갔고 다시 과거의 발견으로 이동해 갔다. 가깝게는 그 동안 오랑개 왕조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北魏문화를 재조명하게 하였고 다시 더욱 소급하여 갑골문자에 까지 관심을 갖게끔 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땅에 파묻혀 있었던 금석들이 활발히 발견될 수 있었다. 무한히 과거로 소급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의 복고주의는 과거 어느 특정 시대를 전범으로 삼는 복고주의와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17세기 들어 조선에도 碑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는 18세기에도 이어져 서체 및 고증학에 대한 관심에서 비학 연구는 계속되었다. 특히 18세기 후반 들어 비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洪良浩는 그 중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홍양호가 조선의 고비들을 통하여 주목한 것은 고대 국가 단계에서 조선에 남겨진 중화의 흔적들이었으며 고비와 역사학, 경제론과의 관련성 문제였다. 비학 연구가 한 획기를 맞이하는 것은 19세기 전반 阮元 이후 碑學 이론을 겸비한 書派가 형성된 이후였다. 김정희는 완원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체에 있어서 이 비학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는 「眞興王巡狩碑」를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여 『禮堂金石過眼錄』을 저술하였으며 청대 지식인들과 금석문을 통한 교류를 확대해 갔다. 김정희는 신라·고려 서체의 우수성을 선양하면서 중화문화의 연계성을 강조하였고 금석학을 역사학에 응용하였다. 또한 碑學의 성과

冊16 「題多胡碑後」, “多胡碑 出自日本 具在先君子集中 字畫詭異 然非籀非楷 似有倣依 蓋其和銅四年 卽唐睿宗景雲四年 則日本人文之闕 亦久矣 豈有此混沌未分之書乎 且畫亦脆柔 欲模而未能者也.” 반대로 다호비의 당대적 의미를 알았던 김정희 등은 이를 옹방강에게 전하여 교유의 매개로 이용하였다. 비학을 통한 지적 네트워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를 통하여 조선의 현 서예가들을 비판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시작한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19세기에 들어서 더욱 확장되었다. 청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반감은 상당 부분 감소되었으며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연대도 확대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 교류 과정에서 碑學은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비학의 내용 또한 중국과 조선의 과거가 가졌던 공유성을 확인함으로써 같은 문자와 서체를 썼던 과거의 유대를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그들은 전·예서를 통하여 서체미학을 공유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과거 서체였던 전·예서를 자신들의 서체미학으로 전유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일체감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것은 과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인 동시에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碑學은 서세동점 이전에 동아시아 한자문명권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화적·학술적 일체감이 형성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참 고 문 헌

- 康有爲, 『廣藝舟雙楫』.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六十八年(1979).
- 金正喜, 『阮堂全集』.
- 南公轍, 『金陵集』.
- 成大中, 『清城集』.
- 宋時烈, 『宋子大全』.
- 吳世昌, 『槿域書畫徵』.
- 吳熙常, 『老洲集』.
- 阮元, 『擘經室集』.
- 柳得恭, 『古芸堂筆記』. 아세아문화사, 1986.
- _____, 『泠齋集』.
- 俞莘煥, 『鳳樓集』.
- 劉喜海, 『海東金石苑 下』. 아세아문화사, 1976.
- 李德懋, 『靑莊館全書』.
- 李書九, 『惕齋集』.
- 李瀾, 『星湖僿說』.
- 李祖默, 『六橋棠畧』.
-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
- _____, 『潛研堂文集』.
- 許穆, 『記言』.
- 洪敬模, 『冠巖全書』.
- 洪錫謨, 『陶厓集』.
- 洪奭周, 『洪氏讀書錄』.
- 洪良浩, 『耳溪集』.
- 洪義俊, 『傳舊』.
- 黃胤錫, 『頤齋亂藁』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김근, 『한자의 역설』. 삼인, 2009.
- 김동건, 「眉叟許穆의 書藝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영진, 「조선 후기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조선 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류재학, 「阮元의 南北書派論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최정섭 역,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미토, 2006.
- 박광용,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韓國史論』6, 1980.
- 박철상, 「조선 金石學史에서 柳得恭의 위상」. 『大東漢文學』27, 2007.
- 박현규, 「朴趾源 초록본 『金石錄』 분석」. 『大東漢文學』23, 2005.
- _____, 「上海圖書館藏 淸 劉喜海의 定藁本 海東金石苑」. 『書誌學研究』21, 2001.
- _____, 「조선 金正喜의 『東古文存』에 대한 再論」. 『東亞人文學』3, 2003.
- _____, 「中國에서 刊行된 朝鮮後四家 著作物 總攬」. 『韓國漢文學研究』24, 1999.
- _____, 「淸 符葆森의 『國朝正雅集』에 수록된 朝鮮詩」. 『中國學報』51, 2005.
- _____, 「淸朝 학자의 日本 多胡碑 입수과정과 분석」. 『日本語文學』33, 2006.
- 배규하, 『中國書法藝術史(下)』. 이화문화출판사, 2000.
- 벤저민 엘먼, 양희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 사이먼 록슬리, 송성재 역,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생각의 나무, 2005.
- 신영주, 「17세기 문예의 새로운 경향과 낭선군 이우」. 『한문교육연구』27, 2006.
- _____, 「18, 19세기 홍양호가(家)의 예술향유와 서예비평」. 『민족문화사연구』18, 2001.
- 원종필, 「宋代 文人들의 金石器物에 대한 인식 考察」. 『中國人文科學』40, 2008.
- 윤영은, 「淸中期 碑學勃興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가원, 「朝·淸의 文學的 交驩」. 『韓國漢文學研究』5, 1980.
- 이규상,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18세기 조선 인물지: 並世才彥錄』. 창작과 비평사, 1997.
- 이만열, 「朝鮮後期の 渤海史 認識」.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 이보경, 『근대어의 탄생: 중국의 백화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완우, 「碑帖으로 본 한국서예사 - 朗善君 李偈의 『大東金石書』」. 『국학연구』1, 2002.
- _____, 「圓嶠 李匡師의 書藝」. 『美術史學研究』190·191, 1991.
- 임세권, 「조선시대 금석학 연구의 실태」. 『국학연구』1, 2002.
-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문화사, 2008.
- 조성산, 「17세기 말 - 18세기 초 洛論系 文風の 형성과 朱子學的 義理論」. 『韓國思想史學』21, 2003.
- _____, 「18세기 후반 - 19세기 전반 對淸認識의 변화와 새로운 中華 觀念의 형성」. 『韓國史研究』145, 2009a.
- _____, 「조선 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歷史學報』202, 2009b.
- _____, 「18세기 후반 - 19세기 전반 '朝鮮學' 형성의 전제와 가능성」. 『東方學志』148, 2009c.

陳振濂, 김홍철 편역, 『中國書法發展史』. 청주대학교 출판부, 2000.
최경춘, 『18세기 문인들의 서예론 탐구』. 한국학술정보, 2009.
최완수, 「金秋史의 金石學」. 『潤松文華』3, 1972.
_____, 「碑派書考」. 『潤松文華』27, 1984.
_____, 「韓國書藝史綱」. 『潤松文華』33, 1987.
켄트 가이, 양휘웅 역, 『사고전서』. 생각의 나무, 2009.
황정연, 「朗善君 李侯의 書畫 收藏과 編纂」. 『藏書閣』9, 2003.

藤塚鄰, 『日鮮清の文化交渉』. 中文館書店, 1947.
石川九楊, 『漢字がつくった東アジア』. 筑摩書房, 2007.
神田喜一郎, 「中國書道史(7) 隋·唐 一」. 『書道全集』第7卷 中國·隋唐 I, 平凡社, 1987.
劉恒, 『中國書法史 - 清代 - 』. 江蘇教育出版社, 2009.

Kai-wing Chow, *The Rise of Confucian Ritualism in Late Imperial Chin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국 문 요 약

이 글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기 조선에서 유행했던 碑學 연구의 의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으로 金石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古碑에 대한 연구들이 증대하였다. 비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阮元의 「南北書派論」과 「北碑南帖論」이라는 글이 나오고, 이어 包世臣의 『藝舟雙楫』, 康有爲의 『廣藝舟雙楫』이 나오면서부터였다. 고증학 범위 안에 있었던 비학이 書體의 문제와 본격적으로 결합하면서 대중화되었던 것은 이들의 논설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랑개로 폄하되던 北魏문화가 재조명되었고, 나아가 중국의 고대문화가 구체적인 물건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고비에 대한 관심은 조선에도 전해져 17세기 후반 이래로 많은 지식인들이 비학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중요한 발전은 阮元 등의 이론을 수용한 金正喜에 의해 일어났다. 김정희는 신라와 고려비에 담긴 北碑的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중국문화와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중국과 중화문화를 과거에 공유했다는 의식을 갖는 데 신라와 고려비는 중요한 매개였다. 중화문화의 원형을 발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고비가 소중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는 중국에는 현재 없고 조선과 일본에는 남아 있는 고대 중화문화의 원형을 찾는 과정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즉 고비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동아시아에서 확산되었던 同文 의식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碑學은 서세동점 과정에서 동아시아 한자문명권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화적·학술적 교류와 일체감이 형성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투고일 2010. 4. 11.

수정일 2010. 5. 24.

게재 확정일 2010. 6. 7.

주제어(keyword) 碑學(the Learning of Ancient Stone Monument), 金正喜(Kim, Jung Hee), 中華文化(Sinocentric culture), 同文意識(consciousness of the same letters), 朝鮮學(Chosŏn Studies), 考證學(the philologico-bibliographical study)